

'핫'해지는 연애 예능

커플로 매칭돼 '천국도'라고 불리는 고급 리조트에 함께 들어간 두 남녀. 카메라는 둘이 한밤중에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부스럭거리는 모습을 담는다. 이내 이런 음성이 들린다. "너무 후 들어오는 거 아냐?"

현재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인 '솔로지옥' 시즌4의 공식 예고편 중 한 장면이다. "고자극 연애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이 방송은 두 남녀가 같은 침대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듯한 장면을 4번째 시즌 만에 처음으로 담아 내며 수위를 높였다.

2일 방송가에 따르면 두근두근한 설렘을 담아내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한층 더 '핫'해졌다.

비슷한 포맷의 연애 예능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중의 피로도가 쌓이자, 강력한 '도파민'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이 있다. 2021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화끈한 데이트 리얼리티쇼'를 표방했다.

남녀가 외탄소에서 수영복을 입고 몸매를 뽐내고, 서로 마음이 맞은 두 커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는 설정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프로그램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왔다.

시즌3은 소위 말하는 '빌런'들의 활약으로 화제를 모았고, 시즌4는 예고편에 담긴 '침대 장면'으로 공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나는 솔로'·'환승연애' 등 비슷한 포맷 피로감 신체 노출·호텔서 하룻밤 등 자극적 설정 초점 OTT 공개 후 금기 풀리며 자극도 점점 높아져

시즌4 공개를 앞두고 제작진은 "지난 시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뜨거운 천국도+가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눈 땀 수 없는 역대급 도파민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었다.

2021년 첫 방송을 시작한 티빙 오리지널 예능 '환승연애'도 올해 중 시즌4로 돌아온다.

교제하다가 이별한 연인 여러 쌍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사람과 옛 연인 사이에서 누구와 만날지 선택하는 과정을 담아낸 리얼리티 예능이다.

'환승연애'는 노출이나 수위 높은 '스킨십'은 없지만, 헤어진 전 연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엑스'(전 여자친구-전 남자친구)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자극적인 규칙을 내세웠다. 시청자들은 상대방과 재회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참가자가 새로운 이성에게 흔들리는 전 연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지켜 보며 눈물 짓고,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해 전 연인에게 매정하게 구는 출연자를 보며 분노하며 '과몰입' 한다.

인간 다큐멘터리 같은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솔로'로 2021년 첫 방송을 시작한 4년째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나는 솔로'는 결혼을 목적으로 모인 남녀를 관찰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지만, 설레는 장면보다는 분통 터지는 장면이 더 많다.

연애가 간절한 출연진은 본인도 모르는 새 미숙하고 못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제작진은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기수마다 '빌런'들이 화제 물이를 하며 '육하문서 보는 재미'로 시청자들을 묶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리 섹렘' 대신 '도파민 충전'을 노리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점점 더 자극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내다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초반 인기를 끌던 시기만 해도 TV에서 자극적인 설정과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묘한 멜로 감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기존의 금기가 풀리면서 점점 더 자극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중의 허용 범위를 넘나들면서 미국의 연애 리얼리티 예능처럼 변해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영화계 개봉일 '눈치 싸움'

수요일 개봉 공식 깨고 '전략 개봉'... 관객 몰릴 시기 옛보다 결정

최근 영화계에서 개봉 시점을 두고 배급사 간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수요일 개봉 공식'이 깨진 것은 물론이고 개봉을 얼마 앞두지 않고 날짜를 바꾸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극장가가 침체한 데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일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 설 황금연휴(1월 25~30일)를 겨냥한 한국 영화 3편 중 수요일에 개봉한 영화는 '히트맨 2'(22일) 한 편뿐이다.

'검은 수녀들'은 연휴 직전이자 금요일인 24일 개봉을 택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경우 설 전날인 28일 개봉을 예정했다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월요일인 이날로 개봉일을 옮겼다.

앞서 '하얼빈'은 개봉을 보름가량 남기고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서 이브인 24일로 개봉일을 앞당기기도 했다.

배급사들이 하루 이틀 차이에도 개봉일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과거와 비교하면 개봉의 '타이밍'이 영화의 흥행을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극장가 파이가 작아진 상황에서

대작과의 맞대결은 최대한 피하되, 관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를 세밀하게 예측해 개봉해야만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객 한 명이 아쉬운 만큼 가장 영화가 잘 팔릴 시기를 엿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나 관객 입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프닝 스코어(개봉일 관객 수)가 높게 나올 만한 날짜를 고르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배급사 관계자는 "오프닝 스코어가 10만명 정도는 돼야 영화 홍보에도 활용하기 좋은데 요즘 수요일 10만명 동원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예컨대 금요일에 개봉해 오프닝 스코어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분위기를 주말로 이어가게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어떤 영화가 대박이 나고 실패할지 점점 더 예상하기 어려울 때에 할 수 있는 건 가장 안전한 시기에 개봉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경쟁작 면면이나 공휴일이 며칠인지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기작이 나오는지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제 '아파트' 뮤직비디오 10억뷰 돌파

K팝 아티스트 최단기간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히트곡 '아파트'(APT.·사진)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0억회를 넘어섰다고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8일 공개된 이 영상은 발매 105일 만인 지난달 31일 10억뷰를 달성했다.

이는 K팝 아티스트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조회 수 10억회를 돌파한 것이며, 전 세계 뮤직비디오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아파트'는 로제의 솔로 1집 '로지'(rosie) 수록



곡으로 '아파트 아파트~'라는 중독적인 후렴구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